光日春秋

문 국 현

피터 드러커의 숲

우리가 피터 드러커 교수를 만나러 갔던 것은 재작년 10월이었다. 그의 연세가 이미 95세가 된 때였다. 캘리포니아 L.A. 부근 클레어몬트라는 대학 도시로 찾아갔을 때, 그는 먼 한국에서 온 기업인과 학자들을 마치 친자식 대하듯이 친절하게 대해 주었다. 2시간이 넘는 인터뷰에서는 한국이 지난 30년간 이룬 경제적 성과와 미래 잠재력에 대한 덕담을 잊지 않았다.

그 때 막 나온 '데일리 드러커(오늘의 드러커)'라는 책에 일일이 서명을 해주면서, 점심까지 함께 하자는 것이었다. 마침, 폭우가 쏟아지고 부인 도리스 여사도 댁에 있지 않았다. 어떻게 점심을 하자는 것일까 궁금해하고 있는데, 가까운 곳에 자주 가는 식당이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95세의 연세, 게다가 워커라고 네발 달린 지팡이를 쓰는 노교수가, 폭우가 쏟아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 외출을 할 것이라고 상상도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큰 감동으로 다가왔다. 폭우 속에 식당에 도착해 음식을 시킬 때도 그는 우리들 하나 하나에게 질문을 해가며 각별한 친절을 베풀고 배려를 했다. 그래서 "어쩌면 그토록 오래 젊음을 잘 유지할 수 있느냐"고 물었더니, 'Life-long learning keeps people young' 이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매사에 흥미를 가지고 평생 학습에 열중하다 보니 늙을 시간이 없었다는 말이었다.

점심이 끝났을 때도 폭우는 지속되고 있었다. 다음해 한국에서 창립되는 피터 드러커 소사이어티 창립식에 꼭 오라고 부탁 드리며 우리는 아쉬운 이별을 했다.

2005년 9월 창립식이 있던 날, 드러커 교수는 더 이상 여행을 할 수 없게 되어 아내 도리스를 대신 참석 시켜 보려 했지만, 여의치 않아 축하 메시지만 보내주었다. 그리고, 두달여 후, 만 96세의 생신을 1주일 앞두고 별세했다.

그 6개월 후, 클레어몬트의 피터 드러커 경영대학원에서는 성대한 추모식이 있었다. 미국 내 500대 주요 대기업의 전·현직 CEO들과 세계적 석학들이 모여 그의 위대한 업적과 정신을 기렸다. 우리나라에서도 그의 추모식 겸 피터드러커 소사이어티 헌장 선포식이 지난 6월 7일 서울에서 있었다. 각계 전문가 CEO들이 수백명 참가하여, 현대 경영학의 창시자이자, 평생학습을 통한 지식사회와 혁신주도적 기업가 정신, 그리고 제 3 섹터의 창조적 역할을 중시하던 드러커 교수를 추모하였다.

반갑고도 놀라왔던 것은 부인 도리스 드러커 여사가 94세의 연세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추모식에 참석한 것이었다. 혼자 비행기 여행을 잘 한다고 했더니, 혼자 온 것이 아니고 180여명이 함께 왔다고 하였다. 우리가 놀랐더니, 타고 온 비행기에 함께 온 탑승객 수가 그렇다며, 장난스레 웃었다. 둘째날 아침 7시부터 시작된 조찬행사, 여러 번의 오전 인터뷰, 오찬행사, 오후 내내 지속된 추모식, 헌장 선포식 및 세미나, 그리고 뒤따른 추가 인터뷰가 밤 10시까지 15시간이나 지속되었건만 도리스 여사는 각종 행사 때마다 단아한 자세를 조금도 흩뜨리지 않았다. 우리는 그 건강과 정신력, 그리고 열정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어쩌면 40대 같은 젊음을 유지하느냐고 물었다. 그랬더니, 또 한번 환히 웃으며, 당신의 기분은 29살이라고 하였다. 또 한바탕 우리 모두 폭소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도리스 여사는 우리나라의 평생학습 열기, 지식사회로 가기 위한 노력, 피터 드러커 소사이어티의 CEO 독서클럽 등에 대해 크게 감명을 받았다고 했다. 남편이 왜 한국을 그렇게 찬양하고 한국의 미래를 밝게 보았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고 했다. 또한, 피터 드러커의 유지에 따라 당신이 피터드러커 소사이어티의 헌장 선포식에 직접 참석할 수 있었던 것을 행복해 했다.

도리스 여사는 4일간의 일정을 마치며, 못내 아쉬워했다. 우리도 같은 심정이었다. 갑자기 그는 내게 조용히 다가와 나무를 한국에 심고 싶다며, 두 그루 나무 값을 억지로 손에 쥐어 주었다.

그 순간, 피터 드러커 교수와 도리스 드러커 여사의 68년에 걸친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 그들의 한국 사랑 이야기가 주마등처럼 뇌리를 스쳐 지나갔다. 그들의 사랑과 지식사회에 대한 열망이 아름다운 두 그루 나무가 되어, 이 땅에서 영원히 지식과 사랑과 나눔의 숲으로 커 가기를 어느새 나는 기도 하고 있었다.

〈유한킴벌리 대표이사 사장〉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34/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기 고

이 보 안

정부 '동북아물류허브' 꿈 포기하려는가?

해양수산부는 6·26발표한 '전국무역항기본계획 정비용역'결과, 2011년까지의 컨테이너선석 수요전망치를 당초 96개에서 62개로 축소하면서 부산항은 33개에서 30개로 3개 축소한 반면 광양항은 29개에서 16개로 무려 13개를 축소해야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축소라기보다는 연기라고 봐야한다'는 궁색한 변명을 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 광양항을 축소하고 부산항을 집중 개발해야한다는 원포트 정책을 주장하며 기회 있을 때 마다 양항정책을 흔들어 대는 세력에 굴복, 참여정부가 이번용역결과를 핑계 삼아 슬그머니 이들의 손을 들어주어 결과적으로 선투자하는 정책이 아니었던가.

또한 물동량 예측은 지금까지 제대로 들어맞은 적이 없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신뢰할 수가 없다. (예를 들면 이번용역에 한미FTA도 고려되었는지 모르겠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광양항의 물동량 감소를 예상하였음에도 올해 5월까지 광양항의 물동량은 전년보다 30%이상 늘어나고 있어 머지않아 자립항만이 될 기대에 부풀어있으며 이를 위해 관련기관들이 머리를 맞대어 지혜를 짜내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정부에서는 광양항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지원해 주어야 함에도 일부지역의 이기적인 주장에 이끌려 양항정책을 포기한다는 것은 국가경쟁력을 스스로 약화시키려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없다.

경쟁이 치열해 질수록 서비스가 항만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될 것이다.

부산항은 오랜역사로 수준 높은 서비스를, 광양항은 빠른 서비스로때로는 경쟁하며 때로는 보완하는 역할을 하여 외국의 선사들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주고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면 시너지효과를 높일 수 있다.

또한 광양항은 항만이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의 중심지역으로서 화물창출형 항만으로 발전하고 인접 산단의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선도,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데 지대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양항정책이 지속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공보관〉

기 고

고 영 만

국제 원자재가격 급등 대비해야

국제 원자재가격이 급등하면서 수입가격지수가 매월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원유가가 배럴당 65달러를 상회해 전년동기대비 40% 이상 급등한 것을 비롯, 대부분 해외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구리·알루미늄·니켈 등 비철금속 가격이 전년에 비해 84%나 대폭 상승하는 등 대부분의 원자재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기 때문이다.

원자재가격의 상승은 가공단계에서 중간재가격에 전이되고 결국 최종 제품의 생산원가를 상승시키게 된다. 이는 소비자 가격을 상승시켜 국내에서는 인플레이션을, 해외 수출품에서는 수출가격 인상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그러나 환율의 지속적인 상승에 지쳐 있는 우리 수출업계로서는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발생한 가격인상요인을 수출가에 반영시키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광주·전남 수출업체의 경우 달러당 980원 이하에서 수출채산성이 있다고 응답한 업체가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원자재가격의 상승은 업체에게 엎친데 덮친 격의 어려움을 안겨주고 있다.

우선 업체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소요자금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정부는 원자재구매자금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자금지원한도가 현재 1개업체당 5억~10억으로 제한되고 있어 충분한 지원이 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 대출한도를 확대하고 적용금리도 대폭 인하해 수출업체의 자금부담을 경감시켜야 한다.

이와 함께 원자재 비축·배분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국내원자재 비축은 기금부족으로 인해 국내수요의 20일분 밖에 비축되지 않고 있고 비축대상 원자재도 10여개에 불과하다.

따라서 기금을 확충하여 비축대상 원자재를 확대하고 비축규모도 선진국 수준인 국내수요의 1개월 이상으로 확대하여야 한다.

그럼으로써 중소 제조업체는 개별적으로 소량의 원자재를 구매하는데 따르는 상대적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가 만성적인 원자재 부족국가인 점을 감안, 해외자원개발을 활발히 추진함으로써 안정적인 자원확보책을 강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세계 각국은 경쟁적으로 자원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우리도 이에 적극 나섬으로써 현재 5%도 안 되는 원자재 직접확보율을 일본 등 선진국 수준인 10% 이상으로 확대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와 민간이 협조하여 해외진출기업에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민간기업의 해외투자 마인드를 선도하고 기술적 리스크를 경감시켜 줄 필요가 있다.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부장〉

학원들, 학생들에 유해한 홍보 경품 나눠줘서야

회사에 출근하면서 인근 고등학교를 지날 때마다 입시 학원에서 학생들에게 학원 홍보물과 경품 등을 나눠주는 것을 가끔 본다.

며칠 전에는 학생들이 학원에서 나눠준 물건을 받고 여럿이 모여 웃고 있길래 무심코 들여다봤더니 담배 모양의 막대 사탕이었다.

그저 '담배 모양 사탕일 뿐'이라는 생각도 들지만 왜 하필 담배 비슷한 모양의 사탕을 나눠주는지 한 번 생각해봤다.

학생들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인지, 아니면 대리 만족을 느끼라는 것인지 도통 모르겠다. 생각 없이 무작정 나눠준 것은 아니라는 생각도 들어 씸하기도 했다.

이외 연예인 사진부터 할인쿠폰·껌·경품권 등도 나눠주는데, 아이들 공부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

껌도 그렇다.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나눠주면 수업시간에 씹을 것 아닌가. 할인쿠폰도 사행심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

학생을 끌어들이기 위한 유치 경쟁도 좋지만 청소년들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 생각해 봤으면 한다.

▲김기원·광주시 서구 세하동

경미한 교통사고 피해 부풀리기 "비양심적"

최근 시내에서 우회전을 하다가 정지 신호를 받고 차를 세웠는데, 마침 길을 건너던 시각장애인에게 방해가 될 것 같아 차를 앞으로 살짝 이동시키다 앞서 있던 1t트럭 뒷부분을 부딪혔다. 속도계 바늘조차 움직이지 않을 정도로 '초저속'상태라, 내 생각엔 '닿은' 것이다.

일단 차에서 내려 1t 트럭 범퍼를 보니 흠집이 나지 않은 것 같아 상대방 운전자에게 "아무 이상도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할까요"라고 먼저 물었더니 트럭 운전자는 "범퍼 안 보이지 않는 부분이 찌그러졌을 것"이라며 보험회사를 통해 처리하자고 했다. 또 "목도 아프니 병원에 입원하겠다"고 했다.

현금으로 조금 보상을 하겠다고 했는데도 운전자는 "병원에 입원하면 일당이 다 나온다"며 거절했다.

트럭 운전자는 "다른 차량 운전자도 이 정도 사고면 다 입원을 한다"고 말해줬다.

어처구니가 없었지만 보험회사에 알려 처리하는 것으로 합의한 뒤 다음날 출근했더니 그 트럭을 '지입'해 사용하는 회사 담당자로부터 "범퍼를 교체할테니 대물 보험 처리를 해 달라"는 전화를 받았다. "아무 이상도 없는 범퍼를 왜 교체하느냐"고 물었더니 "다 하는 것"이라고 했다.

부주의로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사고를 낼 수도 있다. 하지만 모든 피해 차량 운전자들이 이런 사고로 이렇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앞으로 차 몰기 싫다.

▲김상욱·목포시 대방동

사 설

김근태 의장, 노 대통령에게 할 말 다하라

오늘밤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이 노 대통령의 초청으로 청와대에서 만찬을 한다. 정치권과 언론은 5·31 지방선거 여당 참패 후 국정 전반에 걸쳐 흐르는 난기류와 혼란을 김근태의장과 노대통령의 허심탄회한 토론으로 수습할 수 있을 것인가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위기에 빠진 여당의 새 조타수가 된 김근태 의장이 그의 독특한 색깔대로 노대통령에게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말 그대로 '계급장을 떼고'하는 격론이 벌어질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우리는 만신창이 여당의 새 리더가 된 김의장이 지난번 광주 기자간담회에서 "대북송금 특검을 받아들인 것이나 한나라당과의 대연정을 제안한 것이 호남 참패의 원인이다"며 매우 직설적이고 솔직한 말을 하는 걸 보았다. 또 논란의 핵심인 부동산 정책과 관련,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약속대로 하지 않은 것이 문제를 키웠다"며 정책을 정면 공격하는 것도 보았다. 등돌린 민심에 대해 잘못을 잘못이라고 시인하며 자성하는 최소한의 태도를 보인 것이다.

반면 노대통령의 시국해석은 사뭇 다르다. 충격적인 선거결과를 "민심의 흐름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말하던 대통령은 "한두번 선거로 나라가 잘되고 못되는 것이 아니다"라고까지 했다. 대통령이 확신을 갖고 추진하는 정책에 국민들이 따라주지 않는다는 투다.

때문에 요즘 국회에선 부동산·금융·안보·외교등 각종 정책을 두고 여당의원들이 정부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야당의원들 보다 더 높은 기현상이 벌어지고있다. 민심을 아랑곳 않는 정부에 대한 원망일 것이다.

청와대-정부와 여당이 대거리를 일삼는 정치는 비정상이다. 그 모습을 계속 지켜보기엔 참여정부의 남은 임기가 너무 길다. 김근태 의장은 항의할 건 항의하고 설득할 건 설득하며 대통령에게 할말을 다하기 바란다.

폭력성 체벌 엄금하고 규율을 엄히 세우라

수학성적이 나쁘다는 이유로 초등학교 1학년생의 뺨을 때리고 노트를 집어던지는 교사의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다. 광주에서도 말을 듣지 않는다며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을 빗자루로 때려 상처를 입힌 교사가 경찰에 입건됐다. 교육 현장에서 학생을 지도하기 위한 체벌의 필요성을 전적으로 부인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회초리 등을 사용한 교육적 방법이 아닌 교사의 감정이 실린 매질은 체벌과 구분되어야 한다.

학교내 체벌은 1998년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됐다. 국내의 경우 절반이 넘는 학교들이 학교생활규정으로 체벌금지를 명시하고 있다. 체벌 금지를 아예 법제화하자는 주장도 거세다. 그러나 사랑의 매를 들어야 한다는 반론 역시 만만치 않다.

체벌은 금지하면서 사소한 학칙위반에도 엄벌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의 사례는 참고할 가치가 있다. 복장 단속은 기본이고 음란한 대화나 욕설에도 가차없이 퇴학조치를 내리는 제로 톨러런스(무관용)로 미국 내 학원 폭력이 크게 감소했다. 미국 식 엄벌주의는 일본에도 도입돼 일본 정부는 앞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초등학생과 중학생에 대해 출석정지와 같은 엄격한 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우리도 폭력성 체벌은 규제하되 학생들의 작은 실수부터 엄중히 처벌해 학칙과 규율이 존중되는 풍토가 확립되어야 한다.

올해 스승의 날에 몇몇 학교에서는 학부형들이 학교측에 사랑의 회초리를 전달했다. 자식들을 때려달라는 것 보다는 사랑의 회초리 정신을 가슴에 새겨 보다 준엄하게 교육시켜 달라는 의미일 것이다. 일부 학교에서 그 회초리를 체벌에 쓰지 않고 교실에 걸어놓기로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요즈음 회초리를 드는 스승은 찾아보기 힘들어 졌으나 그 정신만은 살려야 한다.

無 等 鼓

기업과 CEO

최근 내로라하는 글로벌 기업 최고경영자(CEO)의 아름다운 은퇴와 행보가 우리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다.

일본 도요타를 세계 최고의 자동차 회사로 키운 오쿠다 히로시(奧田碩) 도요타 자동차 회장이 지난 23일 은퇴했다. 오쿠다는 회장 퇴임 후 명예회장을 맡아달라는 회사의 부탁에 "도요타 가문의 자리까지 차지해선 안된다"며 월급쟁이로서 최후의 선을 그었다.

오쿠다 회장은 전 세계적으로 구조조정 바람이 거셌던 1996년 "직원 목을 자르는 경영자는 자기 배부터 그어라"는 극언을 하며 종신고용을 끝까지 고수, 미국 월스트리트의 도전을 극복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오쿠다는 또 "자기 회사의 이익만 생각하고 나라의 이익을 생각하지 못하는 사장은 '장사꾼에 불과하다"며 '돈을 벌어도 욕먹지 않는 기업'을 경영의 모토로 삼았다.

일본에서 오쿠다 회장의 멋진(?) 은퇴가 화제라면 미국에서는 재산 대부분을 자선단체에 기부키로 한 워런 버핏 버크셔 헤더웨이 회장 겸 CEO가 회자(膾炙)되고 있다. 버핏은 50년 동안 모은 440억 달러의 재산 가운데 370억 달러를 자선단체에 기부한다고 발표해 세상을 놀라게 했다.

뿐만 아니라 버핏은 "상속세는 매우 공정한 세금이고, 기회 균등의 이상을 유지하고 부유층에게 특혜를 주지 않기 위해서도 상속세는 필요하다"며 상속세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부시 미국 대통령을 비난하기도 했다.

걸핏하면 탈세와 경영권 싸움으로 국민에게 추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한국 재벌 기업 CEO들은 오쿠다와 버핏의 최근 행보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기업 이익은 계속 기업을 키워 일자리를 만들고, 정직하게 납세하며, 그리고 남은 것은 기업을 키워 준 사회에 환원한다"는 기업가 정신으로 일생을 보낸 유한양행 설립자인 고(故) 유일한 회장이 요즘 더욱 커 보인다.

/정재현 사회2부장jhjung@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晧 사장 편집·발행·인쇄인 白仁鎬 편집국장 池炯源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00-500·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안내		사 회 2 부	2200-619	총 무 부	2200-511	문화사업국	2200-541
〈대표 FAX	222-4918〉	〈F A X	227-0118〉	〈F A X	222-8005〉	〈F A X	222-0195〉
편 집 부	2200-629	문화생활부	2200-626	광 고 국	2200-521	판 매 부	2200-551
정 치 부	2200-616	여론매체부	2200-628	〈F A X	227-9500〉	〈F A X	227-9500〉
경 제 부	2200-617	체 육 팀	2200-663	디 자 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사 회 1 부	2200-618	사 진 부	2200-690	사 업 2 부	2200-552	〈F A X	02-773-9335〉
〈F A X	222-4267〉	조 사 부	2200-570				

※구독료 월정 8,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